
저자 (Authors)	김수태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22) , 2011.8, 135-174(40 pages) SILLASAHAKPO (22) , 2011.8, 135-174(40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68
APA Style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신라사학보(22), 135-17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0: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김수태*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해공왕의 친정시기 |
| II. 만월부인의 섭정과정 | V. 해공왕 친정기 만월부인의 동향 |
| III. 만월부인의 세력기반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새롭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경덕왕이 765년 사망하자 해공왕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공왕은 즉위하자마자 친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즉위할 때 8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모후인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였다. 이때 섭정정치란 섭정이 혼자서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신들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귀족연합정치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에 해공왕대의 초기는 만월부인으로 상징되는 전제주의세력과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이들은 새로운 권력투쟁을 벌여나가야만 했다.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 24, 2004 : <『삼국유사』 ‘향득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0, 2009 : <임전부퇴의 사회사>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2009 외 다수

만월부인의 섭정에 합의한 두 정치세력의 관계는 곧바로 어그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월부인이 섭정을 통하여 그가 보호하고 있는 해공왕의 권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 19년 이후 세력을 구축한 김웅과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은 만월부인과 왕당파의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섭정인 만월부인이 물러나고, 해공왕이 친정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해공왕 7년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된 무렵이었다. 이것은 섭정인 만월부인과 정치적 대립 갈등을 벌이던 정치세력들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공왕 친정기 만월부인의 동향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녀는 반전제주의 정치세력에 의해서 섭정에서 물러난 후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김웅 및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더욱 강화된 해공왕 10년 이후에 만월부인은 다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모반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해공왕의 왕권강화를 추구한 만월부인의 노력은 실패로 그쳤다. 그리고 해공왕이 시해됨으로써 만월부인의 정치적 노력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그만큼 만월부인과 해공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세력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경덕왕, 해공왕, 만월부인, 섭정, 성덕대왕신종, 김웅, 김양상

I. 문제의 제기

널리 잘 알려지고 있듯이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1950년대에 나온 이기백의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을 들 수 있다.¹⁾ 이를 통해 해공

1) 이기백,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 《신라 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왕대가 중대 전제정치에서 하대 귀족연립정권으로 전환되는 시기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오랫동안 이 시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일어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필자에 의해 경덕왕대의 왕비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졌다.²⁾

해공왕대의 정치사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검토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 우선 기존의 통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해공왕대의 정변과 관호복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해공왕대를 중대 전제정치에서 하대 귀족연립정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³⁾ 이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외척세력의 존재를 크게 강조하면서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살피기도 하였다.⁴⁾ 아울러 해공왕대의 대일본외교를 정치세력과 관련시켜 다시 정리한 연구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⁵⁾ 한편 해공왕대에 시행된 오묘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모후인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한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면서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립갈등을 다룬 연구도 나오게 되었다.⁶⁾ 2000

-
- 2) 김수태, <통일신라기 전제왕권의 붕괴와 김웅> 《역사학보》 99·100, 1983 : <진골귀족세력의 정권장악과 김웅>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1996 및 <신라 선덕왕·원성왕의 왕위계승> 《동아연구》 6, 1985 : <전제왕권의 붕괴와 진골귀족의 권력투쟁>, 앞의 책.
 - 3) 이영호, <신라 해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및 <신라 해공왕 12년 관호복고의 의미> 《대구사학》 39, 1991 :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 4) 박해현, <해공왕대 귀족세력과 중대왕권> 《전남사학》 11, 1997 :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 5)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1997.
 - 6) 이문기, <신라 해공왕대 오묘제 개혁의 정치적 의미> 《백산학보》 52, 1999. 이영호는 최근의 연구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에서 이러한 접근을 받아들이고 있다.

년대에 들어와서도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는데, 특히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해공왕대를 다룬 연구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⁷⁾

해공왕대의 정치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해공왕대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해공왕대의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는 해공왕대가 중대 전제정치에서 하대 귀족연립정권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였을 뿐, 해공왕대의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하느냐, 더 나아가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등 신라사의 정치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대안까지를 언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공왕대의 지명 및 관호 복고를 경덕왕이 추진하였던 개혁정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를 중대적 혹은 전제주의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견의 경우에도⁸⁾ 경덕왕이 추진하였던 개혁정치의 정치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경덕왕의 목표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제정치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의 부정은 중대적 혹은 전제정치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공왕대의 정치사에서 외척의 존재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대에 외척이 정국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이다.⁹⁾ 통일

7) 신정훈, <신라 해공왕대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동서사학》 8, 2001 :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8) 이문기, 앞의 논문, 1999, 826쪽.

9) 전덕재, <신라 중대> 《한국 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2007, 142쪽. 이영호 역시 외척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영호, 앞의 논문, 72쪽).

신라시대가 고려나 조선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종실들은 사환(仕宦)이 제한되었는데, 이에 두 왕조에서 외척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통일신라는 종실들의 사환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실들이 국가의 요직에 등용되었고, 게다가 왕실은 일반적으로 족내혼을 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외척론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무엇보다 사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덕왕대부터 해공왕대까지 외척 세력의 핵심인물로 상정되는 김웅을 경덕왕의 두 번째 왕비인 만월부인과 남매관계로 설정할 때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가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해공왕대의 정치사에 접근하는 태도는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밖에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필자 역시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해서 해공왕 초반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간단히 다루어본 바가 있다.¹¹⁾ 해공왕의 모후가 해공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함으로써 해공왕 초년에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즉 해공왕 초 만월부인과 관련된 정치세력의 활동 목표는 바로 경덕왕으로 상징되는 전제왕권을 해공왕대까지 유지 회복하려는 복고정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760년(경덕왕 19) 이후 세력을 구축한 김웅과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은 만월부인과 왕당파의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월부인의 섭정과 이를 반대하는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의 대립으로 정치구도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해서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살핀 새로운 시도는 섭정과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만월

10) 전덕재, 앞의 논문, 2007.

11) 김수태, <전제왕권의 붕괴와 진골귀족의 권력투쟁>, 앞의 책, 1996, 115~130쪽.

부인의 섭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해공왕과 관련된 정치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공왕대의 정치사는 모후세력과 해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각각 나누어져 이들의 대립 갈등 속에서 해공왕의 시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이 경우 어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사를 대신 담당할 모후와 아들인 국왕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세력으로 나누어 대립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일어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해공왕의 친정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¹²⁾ 해공왕이 775년(해공왕 11)에 친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설명하였는데, 현재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자료가 역시 외척론과 마찬가지로 미비한 상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새롭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해공왕대 만월부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섭정을 하게 되었으며, 만월부인의 세력기반에 속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해공왕의 친정으로 넘어간 시기는 언제이며, 이어 만월부인과 해공왕이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을 바탕으로 대립하였는가, 아니면 같은 세력으로서 이들을 반대하는 진골귀족세력과 대립갈등을 벌였는가를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해공왕대의 정치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른 여러 부분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2) 전덕재, 앞의 논문, 2007.

II. 만월부인의 섭정과정

만월부인은 경덕왕의 두 번째 왕비이다. 첫 번째 왕비인 삼모부인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출궁되고 나서 새로이 왕비가 된 인물이다. 만월부인과 경덕왕의 혼인은 743년(경덕왕 2) 4월에 이루어졌다.¹³⁾ 그러나 만월부인 역시 오랫동안 아들을 가지지 못하였다. 해공왕이 즉위할 때 8살이라는 점으로 보아 만월부인은 758년(경덕왕 17) 무렵 해공왕을 낳았으며, 이때부터 왕비로서의 정치적 위치 또한 확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경덕왕이 765년 사망하자 해공왕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공왕은 즉위하자마자 친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 A-1. 휘는 건운, 경덕왕의 적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부인이니 서불한 김희충의 딸이다.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8세이므로 태후가 섭정하였다.¹⁴⁾
2. 태자는 여덟 살 때에 왕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왕위에 올랐다. 이가 해공대왕이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대신 정사를 보살피니[臨朝]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미처 막아낼 수 없었다. 표훈의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왕은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가 하는 짓만 했다.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도사들과 함께 희롱했다. 그러므로 나라에 큰 난리가 생겨 마침내 선덕왕과 김경신에게 죽임을 당했다.¹⁵⁾

해공왕은 즉위할 때 8살이었다. A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13) 《삼국사기》 권9, 경덕왕 2년 4월.

14) 《삼국사기》 권9, 해공왕 즉위년.

15)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덕왕·충담사·표훈대피.

두 기록은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게 된 이유로 해공왕의 어린 나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만월부인의 섭정에 대해서 A-1에서는 섭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A-2에서는 ‘임조’라는 용어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사에서 후한대 태후의 섭정을 ‘임조’라는 말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¹⁶⁾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임조는 태후가 국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행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국왕이 어렸을 때 모후가 섭정한 사실은 진흥왕에서도 확인된다. 진흥왕 역시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모후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였던 것이다. 모후가 국왕을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왕이 어렸다고 해서 태후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섭정의 추대과정이나, 섭정의 운영 등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내용은 태종무열왕의 집권과정을 알려주는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B. 진덕여왕이 돌아가자 군신은 알천 이찬에게 섭정을 청하였더니 알천이 짐짓 사양하기를 “나는 나이가 늙고 이렇다할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 공만한 이가 없으니 그는 실로 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군신이 드디어 춘추를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춘추는 재삼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¹⁷⁾

신라시대의 섭정과 관련된 이 기록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주목되고 있다.¹⁸⁾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기록을 섭정으로 보기 보다

16) 임혜련, <수림청정의 기원과 변천> 《19세기 수림청정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18~24쪽.

17)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즉위년.

18) 윤진석, <신라 지도로 갈문왕의 ‘섭정’>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91~95쪽.

는 사실상의 왕위추대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신라 중고기 왕위계승권자가 없을 때는 상대등에게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던 데에서 나온 해석이었다.

그러나 섭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등이 왕이 된 것은 하대의 사례이고, 중고기에서 상대등이 왕위를 계승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왕위계승이 아니라 기록 그대로 섭정, 즉 왕위계승권자가 없는 ‘공위의 섭정’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알천이 상대등으로서 섭정이 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로 갈문왕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말한다. 그 역시 3년 동안이라는 섭정과정을 거쳐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섭정을 “군주가 어리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위의 귀족연합적 정치운영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섭정 추대의 과정을 자세히 말하는 B의 기록은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섭정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신들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섭정정치란 진골귀족들이 섭정을 통해서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섭정정치란 섭정이 혼자서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신들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진흥왕의 모후가 섭정을 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파악되고 있다. 지소태후가 진흥왕의 즉위와, 자신의 섭정을 위해 국인으로 불리던 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⁹⁾ 지도로 갈문왕 역

19) 임혜련, 앞의 논문, 2008, 48~49쪽.

시 섭정이었을 때 이른바 공론정치(共論政治)를 하였던 것도 이를 말해준다.²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섭정이 공의를 바탕으로 추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²¹⁾ 그러므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섭정을 추대하는 경우이나, 어린 나이의 국왕을 위해서 모후가 대신 정치를 하는 섭정에서도 그 추대과정은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역시 중고기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섭정은 만월부인과 군신, 다시 말해서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들과 합의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추구하는 왕당파 정치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 나누어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 정치적 이해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만월부인의 섭정에 합의를 본 것은 앞으로 서로 권력을 분점해서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섭정의 운영이란 본질적으로 귀족연합적인 정치운영을 전제로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만월부인과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 사이에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만월부인은 자신의 섭정을 통해서 혜공왕이 친정을 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혜공왕은 즉위 무렵 왕위를 제대로 담당할 인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A-2에 보이듯 혜공왕은 탄생설화가 알려주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가 되어 태어났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가 하는 것만 했다고 한다. 혜공왕이 국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혜공

20) 윤진석, 앞의 논문, 2009, 96~101쪽.

21) 임혜련, 앞의 논문, 25쪽.

왕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여러 정치세력들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섭정정치란 국왕이 어릴 경우에도 그러하였지만, 중국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국왕이 무능할 경우에도 행해졌던 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누군가 해공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경우 진흥왕대의 섭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후가 그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진골귀족세력의 입장에서도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해공왕의 즉위를 진골귀족세력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²⁾ 물론 귀족들 사이에 해공왕의 즉위를 반대하는 어느 정도의 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다.²³⁾ 그러나 해공왕의 왕위계승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경덕왕의 의지를 이들 세력이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함께 760년(경덕왕 19) 김웅이 중시에 임명됨으로써 전제주의 세력과 반전제주의 세력 사이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들의 세력기반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비록 왕당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²⁴⁾

이에 해공왕의 즉위 후 대표적인 두 세력은 만월부인의 섭정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이제 해공왕대 초반은 전제주의세력과 반전제주의진골귀족세력이 또 다른 형태로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이들은 새로운 권력투쟁을 벌여나가야만 했다.

22) 김수태, 앞의 논문, 126쪽.

23) 이기백, 앞의 논문, 231쪽.

24) 신정훈, 앞의 논문, 119~121쪽에서 해공왕의 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Ⅲ. 만월부인의 세력기반

혜공왕의 모후로서 섭정을 하였던 만월부인의 세력기반은 어떠한가. 만월부인의 세력으로는 만월부인의 가문을 들 수 있다. 만월부인의 섭정에 그의 가문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리라는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 C-1. 진표는 미륵보살의 기별을 받아 금산사로 가서 살았다. 해마다 단석을 열여섯 번씩을 널리 베풀어, 그 단석의 장엄함이 말세에서는 아직 없었던 일이었다. 법화가 두루 미치자, 유람 섭력하더니, 아슬라 주에 이르렀다.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그를 물속으로 맞아들였으므로, 진표가 불법을 강의하니 물고기와 자라가 계를 받았다. 그때가 바로 천보 11년 임진(752) 2월 15일이었다. 어떤 책에는 원화 6년(811)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원화는 헌덕왕 때에 해당된다. 성덕왕 때로부터 거의 70년쯤 된다. 경덕왕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궁 안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조 7만 7천 섬을 내렸고, 椒庭列岳이 모두 계품을 받고, 명주 5백단과 황금 50냥을 보시했다. 그는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사찰에 나누어 주어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²⁵⁾
2. 우러러 생각하건대 태후께서는 은혜로움이 땅처럼 평평하여 백성들을 어진 교화로 교화하시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서 부자의 효성을 장려하셨다. 이는 아침에는 元舅의 어짐과 저녁에는 충신의 보필을 받아 말을 가리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으리오. 이에 유언을 돌아보고 드리어 옛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유사에서 이를 준비하고 기술자들은 밑그림을 그렸다. 때는 바로 신해년(771) 12월이었다.²⁶⁾

C-1은 경덕왕 11년(752) 이후 진표의 활동을 알려주고 있는데, 경

25) 《삼국유사》 권4, 의해5, 진표전간.

26) 《성덕대왕신종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덕왕이 진표를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왕후와 외척들도 그러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다. 椒庭列岳이 바로 이를 말한다. 초정은 宮內를, 열악은 아내 쪽의 伯·叔 부모를 말한다고 한다.²⁷⁾ 이는 곧 왕후의 궁전과 왕의 외척을 이르는 것이다. 당시 왕비는 만월부인을 가리키는데, 그녀의 아버지 형제들이 만월부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2의 《성덕대왕신종명》은 해공왕 7년(771)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해공왕의 元舅가 언급되고 있으며, 해공왕이 원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원구는 일반적으로 천자의 외숙, 즉 외삼촌으로 해석되는데,²⁸⁾ 만월부인과 남매관계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해공왕 초반까지 그녀와 해공왕을 도와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월부인의 섭정에는 김의충 가문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와 같이 만월부인의 아버지인 김의충은 효성왕대 중시로 재임하다가 사망하였지만, 그의 가문에 속하는 인물들이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의충 가문과 관련을 맺고 있던 또 다른 귀족세력들도 만월부인의 섭정을 후원해주었을 것이다. 그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고 있을 때 새롭게 정치적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27) 이재호 역, 《삼국유사》, 1997, 272쪽.

28) 이호영, <성덕대왕신종명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125, 1975 : 《신라 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470~471쪽.

29) 신정훈은 의충이 효성왕대 사망하였기 때문에 만월부인의 세력기반은 김의충 가문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진표로부터 보살계를 받은 왕비의 기록도 만월기록과 연결시켜 이해하지 않았다. 열악을 김옹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신정훈, 앞의 논문, 2001, 124쪽 및 137쪽).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만월부인이 보살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그 자세한 양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해공왕의 탄생이 화엄종 승려였던 표훈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만월부인과 불교계와의 깊은 관련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특히 경덕왕의 다양한 불사활동을 고려할 때³⁰⁾ 경덕왕이 왕권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을 맺은 여러 사원세력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덕왕 2년 4월 이전에 출궁된 경덕왕의 첫 번째 왕비인 삼모부인이 중대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황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사실은 A-2에 보이듯, 해공왕이 도사들과 놀았다는 기록이다. 해공왕이 도사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은 만월부인의 가문이 이들 도교 세력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효성왕대에 중국으로부터 노자의 《도덕경》이 새롭게 수용되었는데,³¹⁾ 해공왕과 도사의 관계는 경덕왕대의 사상적 동향에서 도교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들 도교 역시 당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³²⁾ 경덕왕의 왕권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월부인의 세력기반에 속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김의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인물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인물을 사람대로 추측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30) 박승훈, <중대 말기 전제왕권의 동요와 불사활동>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31) 《삼국사기》 권9, 효성왕 2년 3월.

32) 김선민, <당초 군주의 노자숭배와 《노자》의 정치적 운용> 《동방학지》 115, 2002.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만월부인의 세력기반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덕왕의 첫째 왕비였던 삼모부인과 인척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김옹이 두 번째 왕비인 만월부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주조 책임자인 김옹을 《성덕대왕신종명》에 보이는 원구와 동일한 인물로 파악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월부인과 김옹은 남매관계가 되며, 김옹 역시 김의충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³³⁾ 김옹을 해공왕의 외척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모부인은 만월부인과 자연스럽게 인척관계가 된다. 삼모부인은 김순정의 딸인데, 《속일본기》의 기록을 따를 때 김옹은 김순정의 ‘그 손(其孫)’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김옹을 김순정의 손자로 이해할 때 삼모부인과 만월부인은 고모와 조카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만월부인의 아버지인 김의충은 삼모부인과 남매관계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김순정의 집안에서 거듭해서 왕비가 나온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성덕왕대와 효성왕대 김순원의 딸이 대를 이어 왕비가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삼모부인과 만월부인으로 경덕왕의 왕비 교체는 이들 세력내의 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덕왕대 국왕의 혼인범위는 계속 축소되고, 폐쇄적인 외척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된다.³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일찍이 필자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³⁵⁾ 최근에 들어와서 필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자세히 비판하는 견해가 다시 나오고 있다. 같은 김순정 계열이라면 그와

33) 이러한 입장은 일본인 학자들이 제시한 후 박해현, 앞의 논문, 150~154쪽 및 이기동, <성덕대왕신종 조성의 역사적 배경> 《성덕대왕신종》, 1999, 45쪽과 이영호, 앞의 논문, 81쪽이 이를 따르고 있다.

34) 이영호, 앞의 논문.

35) 김수태, <진골귀족의 세력장악과 김옹>, 112쪽.

같이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왕비를 출궁시키고 새롭게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³⁶⁾ 그러한 점은 신라 하대 경문왕의 혼인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경문왕의 경우 두 왕비를 두었는데, 이들은 자매관계였으며 한 명도 출궁되지 않았던 것이다.³⁷⁾ 중대왕실의 혼인원칙이 1왕대 1왕비라고 하더라도³⁸⁾ 이것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왕대에도 그러하였지만, 혜공왕대에도 두 왕비가 공존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웅과 삼모부인의 관계를 남매관계가 아니라 조카관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이 점 역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³⁹⁾ 삼모부인과 김웅이 활동한 시기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손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김순정과 김웅의 관계는 부자관계로 상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웅이 만월부인과 인척관계가 설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삼촌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삼모부인과의 연령 비교를 통해서 다시 설명되고 있다.⁴⁰⁾ 삼모부인은 경덕왕과 혼인할 때 725년(성덕왕 24)이라는 김순정의 사망시기를 고려한다면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김웅 역시 시중이 되는 경덕왕 19년 무렵에는 40세 전후였다는 점에서 삼모부인과 비슷한 연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두 사람은 남매관계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만월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김의충의 사망 시기는 739년(효성왕 3)으로 김순정 보다 늦지만 743년(경덕왕 2)에 왕비가 된 만월부인은 삼모부인과 연령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

36) 신정훈, <경덕왕대 왕권강화책의 성격>, 1999 : 앞의 책, 43~44쪽.

37)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문대왕.

38) 이영호, 앞의 논문, 61쪽.

39) 김수태, 앞의 논문.

40) 신정훈, 앞의 논문, 73쪽.

다. 비슷하거나 보다 조금은 더 어렸을 가능성이 있다. 김의충과 김순정 역시 부자관계로 상정되기 보다는 같은 시기 활동한 인물로 상정된다. 김의충이 김순정 보다는 조금은 연령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의 활동시기 역시 비슷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순정은 삼모부인과 함께 활동한 효정과는 인척관계를 상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⁴¹⁾ 의충과 혈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므로 삼모부인과 만월부인을 고모와 조카의 관계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 아닐까 한다.

김순정과 김의충 그리고 김웅으로 이어지는 친족관계를 상정하는 경우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들이 외교적 성격에서 서로 대비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⁴²⁾ 김순정과 김웅은 모두 대일본외교를 강조한 인물이다. 《속일본기》의 기록들을 따르면⁴³⁾ 김웅의 집안은 대를 이어 일본에 잘 알려져 있었다. 김순정의 죽음에 대해서 일본왕이 애도할 정도였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김웅 역시 해공왕대에 일본과 신라의 외교관계를 크게 중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특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의충은 그와 전혀 다른 외교적 성격의 인물이다. 김의충은 주로 대당외교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성덕왕대에는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인정받아 오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으며, 효성왕대에는 노자의 《도덕경》 등 당의 문물을 수용하는데도 앞장 선 인물

41)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1978 :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73쪽.

42) 이기백,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235쪽에서 제시된 이후 김수태, 앞의 논문, 107~109쪽 및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전덕재는 대일외교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반당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43) 《속일본기》 권33, 광인천황 5년 3월.

이기도 하였다. 곧 김순정과 김용은 외교적 입장이 연결되는데 비하여 김의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만월부인이 추구했던 대당외교와도 김용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덕왕대 이후 대일본외교를 담당하는 세력과 대당외교를 담당하는 세력의 대립을 상정하는 견해를 따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러한 외교적 차이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순정과 김의충, 김의충과 김용의 관계를 서로 부자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해 왔듯이 《성덕대왕신종명》에 보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원구라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구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대상을 확정시킬 수 없다면 그대로 놓아두고 이해하여도 좋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원구는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따른다면 국왕의 외삼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왕의 장인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혜공왕의 두 왕비와 관련된 인물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을 원구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점은 커다란 한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미 잘 지적되고 있듯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⁴⁴⁾ 김용이 그 정도의 많은 관직을 보유하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구로 파악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였을 때 비록 그녀를 도와주는 원구라고 하더라도 모두 그와 같은 관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원구가 김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용을 만월부인과 남매관계로 설정하여 경덕왕과 혜공왕대의 정치사를 설명한 수많은 해석들은 그

44) 전덕재, <신라 중대>, 2007, 142쪽.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덕대왕신종명》은 김웅의 정치적 위치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C-2가 보여주듯이 해공왕을 도와준 정치세력으로서 원구 이외에 충신을 또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신은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만월부인, 원구에 이어 나오는 것으로, 해공왕과 관련된 정치세력들을 설명하는 마지막 용어이다. 해공왕이 원구의 현명함과 함께 충신의 보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로 생각된다. 이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신종의 주조에 관여한 인물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종주조에 관여한 인물들은 종 제작에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검교사 그룹과, 종 제작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사, 판관, 녹사의 관직을 가진 그룹과 종 제작을 위한 기술자인 박사그룹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가운데 ‘신’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책임자인 김웅과 김양상 두 사람 밖에 없다. 이들은 각각 ‘대각간 신 김웅’과 ‘각간 신 김양상’으로 나오고 있다. 6두품에 해당되는 실무자들도 신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에 아무나 ‘신’으로 불리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신종의 명문에 보이는 충신이 기록되고 있으며, 이들이 신이라고 한다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구에게서 언급되고 있듯이 단순히 원구의 현명함이 아니라, 충신의 보필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공왕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원구를 김웅으로 상정하는 견해는 현재의 단계로서는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그를 충신에 속하는 인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김웅을 해공왕의 외척으로 설정하고, 김양상과 함께 만월부인의 섭정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해공왕의 친정시기

그러면 언제 만월부인의 섭정이 끝나고, 해공왕의 친정이 시작되었을까? 해공왕의 친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해 보자.

해공왕대의 친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다름 아니라 해공왕의 친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때문이다.⁴⁵⁾ 후한대 모후가 섭정하였을 경우 환정, 다시 말해서 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참고할 수 있다.⁴⁶⁾ 그러나 해공왕대 친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신라사의 경우 섭정을 하였던 인물들이 물러나고 국왕이 친정을 하는 상황은 진흥왕이나, 애장왕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친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해공왕대 친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다. 해공왕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11년(775)과⁴⁷⁾ 15세가 되는 8년(772) 무렵 설이⁴⁸⁾ 있다. 후자의 경우 8년 이후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45) 전덕재, 앞의 논문.

46) 임혜련, 앞의 논문, 20쪽.

47) 이문기, 앞의 논문, 813~825쪽.

48) 신정훈, 앞의 논문, 148~151쪽.

보아 그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해공왕 8년 이후의 어느 시기로 해공왕의 친정시기를 파악한 이유는 해공왕 8년에서 해공왕 12년까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해공왕 9년(10년)에서 12년(13년)까지 이루어진 건당사의 잦은 파전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공왕 초반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천재지변의 현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무언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해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해공왕 12년에 단행된 오묘제의 변화에 크게 주목하였다. 왕실의 조상제사제도인 오묘제 개편은 국왕의 사망이나 신왕의 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는 점을 들어 776년의 오묘제 개편은 바로 해공왕에게 신왕의 즉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공왕이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였기 때문에 단행된 개혁조치로 이해하였다. 이에 해공왕 12년 이전에 해공왕의 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해공왕 11년으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것은 진흥왕과 애장왕대의 섭정 사례를 통해서였다. 7세에 즉위한 진흥왕의 섭정은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 진흥왕 12년(551)에 개국이라는 연호의 개원조치와 함께 그의 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당시 그의 연령은 18세였다. 13세의 나이로 즉위한 애장왕의 경우에도 6년(805)에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과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정월에 당으로부터 왕모와 왕비가 책봉을 받은 사실을 먼저 들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숙부 언승에 의한 섭정이 끝나고, 애장왕 자신의 친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애장왕과 왕실 가족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공식 20여조가 반포되었는데, 국왕이 자신의 친정과 함께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을 통한 지배체제의 재정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 시

기는 진흥왕과 마찬가지로 애장왕 역시 18세가 되던 해였다. 이에 8세에 즉위하여 모후의 섭정을 받았던 해공왕의 친정개시 시기도 그가 18세가 되던 해인 해공왕 11년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보았다.

섭정에서 친정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중국사의 경우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대략 16세를 넘으면 국왕이 성인이 되었다고 보아서 그 무렵 권력이 황제에게 환원[還政]되었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⁴⁹⁾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시기를 태후가 섭정을 한 후한대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2살 때 환정된 경우도 있으며, 많은 경우 28살 때에 환정되기도 하였고, 10세를 넘긴 경우에도 11살, 12살, 18살, 19살 때에 환정이 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왕의 친정을 굳이 18살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해공왕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애장왕이 18세가 되는 해에 이루어진 당으로부터의 왕모 책봉이라는 기준에 주목한다면 그의 친정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해공왕 역시 당으로부터 왕모인 만월부인에 대한 책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대 유일의 사례로, 그 시기는 비교적 빠른 해공왕 4년(768)의 일이다.⁵¹⁾ 그러나 이를 해공왕이 친정을 시작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만월부인이 이러한 당의 책봉을 통해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과 그 세력에 대해서 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⁵²⁾ 즉 만월부인은 이러한 대외적인 인정을

49) 김인숙, <중국 전통시대 여주의 역사 - 그 이미지와 실체 - >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2005, 329쪽.

50) 임혜련, 앞의 논문, 20쪽에 나오는 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51) 《삼국사기》 권9, 해공왕 4년.

52) 김수태, <전제왕권의 붕괴과정과 진골귀족의 권력투쟁>, 127쪽.

바탕으로 하여 결국 신라 국내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편 오묘제의 개편을 친정개시의 지표로 삼는 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⁵³⁾ 그것은 애장왕대의 오묘제 개편과 관련해서이다. 애장왕은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숙부인 김언승의 섭정을 받았지만, 애장왕 2년에 오묘의 개편에만 그치지 않고 해공왕대 개정되었던 오묘제를 다시 고쳤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섭정을 받았다고 해서 관행이었던 오묘의 개편이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묘제의 개편이 해공왕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양상세력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와 달리 해공왕의 친정시기를 확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성덕대왕신종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해공왕과 관련된 부분이다.

- D. 지금의 우리 성군(해공왕 : 필자 주)께서는 행실이 조상에 부합하고 그 뜻이 지극한 도리에 부합되어 빼어난 상서로움이 과거보다 기이 하며 아름다운 덕은 현재의 으뜸이다. 온 거리의 용이 궁궐의 계단에 음덕의 비를 뿌리고 온 하늘의 천둥이 대궐에 울렸다. 쌀이 열매달린 숲이 변방에 축축 늘어지고 연기가 아닌 색이 서울에 환히 빛났다. 이러한 상서는 곧 태어나신 날과 정사에 임한 때에 응답한 것이다.

C-2의 태후와 관련된 기록에 앞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 마지막에 해공왕이 정사에 임한 때에 상서가 응답했다(應其臨政之時也)는 사실

53) 채미하, <신라 해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2001 : <오묘제왕 왕권>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175~176쪽.

54) 채미하는 <신라 국왕의 시학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32, 2009, 125~126쪽에서는 그와 달리 해공왕 11년에 친정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국학 행차가 국왕이 행한 즉위례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공왕 12년에 있는 국학 행차도 친정의 배경에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해공왕이 친정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표현은 《성덕대왕신종명》에서 성덕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똑 같이 나오고 있다. 성덕왕이 40여 년 동안 나라에 임하여 정사에 힘썼다는 것이다(四十餘年 臨邦勤政). 이때 성덕왕대 섭정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방근정’이란 표현은 국왕의 친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임방근정’의 줄임말로 파악되는 ‘임정’ 역시 해공왕이 친정을 한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임정지시’란 바로 해공왕이 임정을 시작한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A-2에서 언급된 해공왕의 즉위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직 해공왕의 장점만이 이들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공왕의 친정은 성덕대왕신종명이 주도된 해공왕 7년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나이 14살 때였다.⁵⁵⁾

이러한 점에서 해공왕 7년 성덕대왕신종의 완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새롭게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재 두 가지 해석이 나와 있다. 하나는 신종은 당시 외척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던 왕실이 범진골 귀족세력의 집단반발에 의해서 조성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속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다.⁵⁶⁾ 또

55) 때문에 또 다른 번역은 “이는 해공왕의 생일을 경하한 것이며, 또한 왕이 8살 때 즉위한 후 어머니 만월부인의 섭정으로부터 벗어나 친정하게 된 서용인 것이다.”로 해석한다(이지관, <신라 성덕대왕신종명> 《성덕대왕신종》, 69쪽). 이때 성덕왕의 즉위시 연령도 고려가 된다. 효성왕의 탄생시기를 고려할 때 성덕왕 역시 즉위할 무렵 14세 무렵이었다. 그러므로 신라 중대에 14세 무렵이면 국왕의 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 아닐까 한다.

다른 설명은 성덕대왕신종의 주조 배경에는 해공왕대 초반의 대공의 난과 김용의 난 등의 발생이후 흐트러진 정국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고, 특히 명문 중에 섭정을 맡고 있던 태후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음은 성덕대왕신종의 주조가 결국은 모후에 의한 섭정체제의 재정비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⁵⁷⁾

그러나 D의 내용으로 볼 때 성덕대왕신종의 제작이 해공왕 7년에 완성된 것은 만월부인의 섭정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해공왕의 친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와 함께 그동안 만월부인의 섭정으로 그녀와 정치적 대립 갈등을 벌이던 세력들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여기에서 종의 책임자로 나오는 김용과 김양상의 정치적 위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의 정치적 위치가 확고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월부인의 섭정에서 해공왕의 친정이라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보다는 해공왕 초반 당시의 정치적 정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겠다. 경덕왕대 이래로 진행되어온 전제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던 세력과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립은 아니었다. 해공왕은 그의 어머니인 만월부인과 그만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해공왕의 친정을 통해서 만월부인을 해공왕과 분리시키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체적인 흐름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정리된 바가 있다. 그것을 다시

56) 이기동, 앞의 논문, 47쪽.

57) 이문기, 앞의 논문, 823쪽.

58) 김수태, 앞의 논문, 130쪽.

간략하게 언급해두면 아래와 같다.⁵⁹⁾

만월부인의 섭정을 합의한 두 세력의 관계는 곧바로 어그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만월부인이 대당외교의 강화를 통해서 세력회복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만월부인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경덕왕의 한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도 연결되었다 특히 혜공왕의 국학으로의 행차에서 또한 엿볼 수 있다. 중대 국학이 바로 관료세력의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혜공왕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만월부인이 섭정을 통하여 그가 보호하고 있는 혜공왕의 권력기반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덕왕 19년 이후 일단 세력을 구축한 김웅과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은 만월부인과 왕당파의 이러한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A-2에 언급되고 있듯이 “태후가 대신 정사를 보살피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말로 잘 표현되고 있다. 만월부인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직후부터 두 차례의 반란사건을 일으켜서 더욱 확고하게 세력을 구축해나갔던 것이다. 혜공왕 4년(768) 7월에 일어난 대공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2년 뒤인 혜공왕 6년(770)에 일어난 김웅의 난을 통해서 다시 왕당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모두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그것은 그 다음해인 혜공왕 7년에 만들어

59) 김수태, 앞의 논문, 125~128쪽.

60) 섭정파와 친정파의 대립으로 혜공왕대의 정치사를 설명하는 견해는 혜공왕 초기에 일어난 이들의 반란에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만월부인의 섭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하고 혜공왕으로 하여금 친정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말하는 친정 지지세력과는 또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 성덕대왕신종명에 대표적인 반전제주의인물인 김웅과 김양상이 당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데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공왕의 친정은 그와 연결된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움직임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하겠다. 즉 해공왕의 친정은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만월부인의 섭정을 거부하면서 해공왕과 만월부인을 분리시킨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해공왕은 모후인 만월부인의 도움 없이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홀로 수행해 나가야 했다.

V. 해공왕 친정기 만월부인의 동향

해공왕 친정기 만월부인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이 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립이 과연 해공왕 친정기에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섭정에 초점을 맞추어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살피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해공왕이 친정을 개시한 후의 정치세력은 당시의 정치현안이었던 친정문제에 대한 대응에 의해 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친정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라는 두 개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으며, 해공왕 친정기의 정국동향은 이들의 갈등구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공왕 후반기에 일어난 세 차례의 반란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해공왕 11년의 2차례에 걸친 반란 - 김은거와 염상·정문의 반란 - 을 친정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것으로, 만월부인의 섭정을 유지하려는 측의 움직임으로 파악하였다.

혜공왕 11년에 두 차례나 반란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혜공왕이 친정을 막 시작하면서 양자의 갈등이 가장 컸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혜공왕은 이를 진압하고 오묘제 등 나름의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고 말한다.⁶¹⁾

그리고 혜공왕 16년(780)에 반란을 일으킨 김지정 일파 역시 친정 반대세력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이해하였다. 그 역시 혜공왕의 친정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라는 것이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혜공왕대의 정치세력을 친왕파(=중대지지세력)와 전체주의적인 반왕파(=하대지향세력)로 나누면서, 김지정을 친왕파 혹은 왕당파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본 것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록에 주목한다.

- E. 정월에 누런 안개가 끼고 2월에 흠비가 왔다. 왕은 어려서 즉위하여 장성함에 따라 성색에 빠지고 무시로 유행하여 기강이 문란하고 재이가 자주 나타나며 인심이 이반하고 사직이 불안하였으므로 이찬 김지정이 반하여 도중을 모아 궁궐을 에웠다.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后妃는 난병에게 피살되었다.⁶²⁾

위의 사료에서 이찬 지정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혜공왕의 시대를 어린 시절과 장성한 이후로 나누고, 반란의 이유로서 혜공왕이 장성한 이후에 저지른 실정을 들고 있음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지정 일파가 혜공왕의 친정에 불만을 가진 비판세력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친왕파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혜공왕이 친정을 시작하고 무려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친정을 비판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사

61) 이문기, 앞의 논문, 827~829쪽.

62) <<삼국사기>> 권9, 혜공왕 16년.

실은 해공왕 11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친정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자 친정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정치세력들이 나누어져 갈등을 벌였는데, 그 갈등관계가 해공왕 말년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정의 정치적 성격은 역시 왕당파의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해공왕의 실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공왕의 친정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더 나아가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곧바로 연결시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세력 내에서도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원성왕의 즉위년조 기사는⁶³⁾ 사료 E의 기록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해공왕 말년에 叛臣이 발호하였을 때 당시 상대등이던 선덕왕이 이를 ‘君側의 악’을 숙청하기를 선창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이다. 반신과 균축의 악이란 모두 김지정을 지목하는 것으로, 그를 임금과 관련된 인물, 임금의 핵심세력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김지정이 해공왕과 관련된 친왕파 혹은 왕당파 세력임을 분명히 해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대상은 해공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 김양상과 김경신이라는 점을 함께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해공왕대와 관련된 어떠한 정치사 해석을 따르더라도, 해공왕 말년에 김양상은 이미 해공왕의 정치에 반대되는 인물로 공통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살필 수 있다.⁶⁴⁾ 그렇다면 이것은 해공왕 친정기의 정치

63)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즉위년.

64) 이문기, 앞의 논문, 838~839쪽에서 김양상이 해공왕 13년(777) 이후 해공왕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에 반기를 들고, 거기에서 이탈한 세력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구도를 혜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친정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였던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한 세력과 혜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인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그보다는 기존의 해석처럼 오히려 당시의 정국을 주도하던 김양상 및 김경신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대립갈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혜공왕의 실정을 언급한 부분 역시 그러하다. 물론 이를 김지정의 혜공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해주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2에 언급되고 있듯이 《삼국유사》는 혜공왕과 만월부인의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만월부인의 섭정기와 혜공왕 친정기 모두 통치 질서가 문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혜공왕이 장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그러하였다고 말한다.⁶⁵⁾ 사실 이 시기는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만월부인이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시기였으며, 친왕과 세력이 세력회복을 꾀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혜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혜공왕의 사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인 김양상과 김경신의 입장이 오히려 이들 기록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만월부인의 섭정정치와 혜공왕의 정치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두 시기 모두 대당외교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 입장에서도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월부인과 혜공왕이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 성격을 가졌다고 이해되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정치적

65) 이문기는 그와 같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어린 시절과 장성한 시기로 구별하고 있으나, 그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만월부인과 해공왕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지적하는 해공왕의 개인적인 성격상 결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의 여성스러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공왕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와 있다. 효성스럽고 일을 잘 처리한 것으로 언급한 《성덕대왕신종명》의 기사와 A-2와 E에 보이듯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해공왕대의 정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해공왕을 서로 엇갈리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해공왕 자신은 유약하였으며,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능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에 해공왕이 친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⁶⁶⁾ 이와 달리 해공왕의 친정을 강조하는 이해에 의하면 해공왕은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오묘제의 개혁, 지명 및 관호에 대한 복고정책 등 상당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⁶⁷⁾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해공왕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때 분명한 것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바와 같이 해공왕 후반기인 15년(779) 김유신계가 신원운동을 제기하였을 때 해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해공왕은 자신의 세력기반이 아닌 김경신 등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⁶⁸⁾ 이것은 해공왕이 당시 정국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공왕의 움직임은 김지정을 비롯한 왕당파나 반전제주의 진골귀족 세력들 모두에게 불

66) 신정훈, 앞의 논문, 151~153쪽.

67) 이문기, 앞의 논문, 811~839쪽.

68) 《삼국유사》 권1, 기이1, 미추왕·죽엽군.

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같은 왕당파인 김지정에게 시해되는 배경으로까지⁶⁹⁾ 작용하였을 것이다.

혜공왕 11년에 반란을 일으킨 김은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를 단순히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속일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시 속위왕자로 표현되고 있다.⁷⁰⁾ 경덕왕의 또 다른 왕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덕왕계와 관련된 왕족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⁷¹⁾ 이것은 그 역시 혜공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은거의 신분을 고려할 때 그를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인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은거는 혜공왕 3년(767) 당에 만월부인의 책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견당사로 당에 다녀왔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만월부인과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에 만월부인에 대한 책봉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혜공왕에 대한 책봉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왕비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월부인에 대한 책봉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당의 책봉을 통해서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은거는 만월부인과 혜공왕 모두와 서로 정치적 운

69) 김수태, 앞의 논문, 133쪽. 이후 이문기, 앞의 논문, 839쪽과 신정훈, 앞의 논문, 188쪽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

70) 《속일본기》 30, 청덕천황 원년 3월.

71) 전덕재, 앞의 논문, 7~8쪽. 이는 경덕왕대 이후 추진된 대당외교에 경덕왕이나 혜공왕의 왕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경덕왕대의 경우에도 경덕왕 2년(743) 9월 경덕왕은 동생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였다고 한다(《삼국사기》 9. 경덕왕 2년). 김은거와 이 인물이 동일한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혜공왕대 왕자인 김은거의 대당외교는 경덕왕 초반 왕족의 대당외교 활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명을 같이하는 관계로 이해된다.

염상과 정문 역시 그러한 인물이다. 염상은 경덕왕 17년 정월에 중시에 취임하여 이듬해에 단행된 관호의 한화정책에 참여하였다가 19년 김웅의 중시임명과 함께 물러난 인물이다. 이는 그를 왕당파 인물로 이해하게 한다. 정문 역시 염상과 함께 모반하였다는 사실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특히 반해공파의 반란인 김웅의 반란이 일어난 직후에 중시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왕당파 세력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⁷²⁾ 그렇다면 이들 역시 해공왕의 친정을 반대하고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모반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모반을 일으킨 시기가 김웅과 김양상이 해공왕 10년(774)에 이르러 더욱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간 바로 다음 해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웅이 김순정에 이어 여전히 집정을 하고 있음이 일본에 알려지고, 김양상은 마침내 상대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이와 같이 대일본외교를 새롭게 전개하는 동안, 왕당파 세력은 해공왕 9년(773)부터 12년(776)까지 매년 2차례씩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다시 정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⁷³⁾ 그러므로 이들의 모반은 김지정의 반란과 마찬가지로 해공왕의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김웅 및 김양상 세력을 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세력의 구분에 의하여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살피는 견해를 따르면 경덕왕의 한화정책과 연관된 이들은 만월부인의 섭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류된다. 해공왕 12년에 단행된 지명 및 관호에 대한 복고정

72) 이기백, 앞의 논문, 236쪽 및 신정훈, 앞의 논문, 165쪽.

73) 김수태, 앞의 논문, 131쪽.

책이 반전제주의 진골세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추진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것이다.⁷⁴⁾ 모후인 만월부인의 섭정시기를 경덕왕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며, 해공왕 12년의 복고정책은 경덕왕대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는 모후 섭정기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공왕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경덕왕대 이래 모후 섭정기 동안 이어져 온 정국운영의 기조를 친정체제에 걸맞게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공왕대의 복고정책은 아무래도 만월부인의 섭정을 반대하며 해공왕의 친정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라기보다 해공왕 7년 이후에 들어와서 더욱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한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해공왕의 친정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성덕대왕신종의 주조에서 보여주듯이 해공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경덕왕과 성덕왕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공왕대의 외교와, 경덕왕대의 외교를 비교할 때 해공왕 역시 아버지인 경덕왕과 마찬가지로 대당외교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서로 간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만월부인과 해공왕을 서로 분리시켜 해공왕대의 정치사를 살피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해공왕 친정기 만월부인의 동향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녀는 반전제주의 정치세력에 의해서 해공왕 7년 섭정에서 물러난 후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웅 및 김양상 등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더욱

74) 이문기, 앞의 논문, 824~827쪽.

강화된 해공왕 10년 이후에는⁷⁵⁾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해아려진다. 그것은 해공왕 11년에 들어와서 그녀의 섭정시기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인 김은거나 염상·정문이 일으킨 반란 사건을 통해서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해공왕 10년에 더욱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던 김웅과 김양상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만월부인의 의도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이다. 섭정시기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해공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만월부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⁷⁶⁾ 그러나 만월부인의 기대와는 달리 두 차례에 걸친 모반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더욱 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료 E에서 김지정에 의해서 살해된 인물로 해공왕 이외에 ‘后妃’가 또한 언급되고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만월부인의 움직임과 연결시켜 새롭게 살핀 연구도 나와 있다.⁷⁷⁾ 일반적으로 후비는 왕비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후와 비로 나누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후는 만월부인을 가리키며, 비는 왕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성덕

75) 섭정과와 친정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해공왕대의 정치사에 의하면 김웅과 김양상은 해공왕 10년 무렵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문기, 앞의 논문, 803쪽). 한편 그가 이 무렵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신정훈, 앞의 논문, 159쪽). 그러나 김웅의 아버지인 김순정이 성덕왕대 상재였으며, 해공왕대 김웅 역시 그의 자리를 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김웅 역시 당시 상재로서 해공왕대 전 기간에 걸쳐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김웅의 정치적 위치는 언제인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역시 상재로 언급되는 김주원에게 이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선덕왕 김양상이 해공왕대 독자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김수태, 앞의 논문, 136쪽), 그의 상대등으로서의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76) 신정훈, 앞의 논문, 165쪽에서도 필자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77) 신정훈, 앞의 논문, 188쪽.

대왕신종명》에서 해공왕의 태후를 후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비가 그렇게 후와 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후 한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면 만월부인은 해공왕 말년까지 해공왕과 함께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전히 당시의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해공왕과 태후가 김지정에 의하여 함께 살해되었다는 것은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이 주도하던 당시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던 이들에 대한 왕당파세력의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따라서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에 의하여 섭정을 그만둔 그녀는 해공왕이 친정을 한 후에도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해공왕의 왕권강화를 지지하는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그쳤다고 하겠다. 그만큼 만월부인과 해공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세력이었던 것이다.

78) 김수태, 앞의 논문, 135쪽.

【참고문헌】

- 곽승훈, <중대 말기 전제왕권의 동요와 불사활동>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 김선민, <당초 군주의 노자숭배와 《노자》의 정치적 운용> 《동방학지》 115, 2002.
- 김수태, <통일신라기 전제왕권의 붕괴와 김웅> 《역사학보》 99·100, 1983 : <진골귀족세력의 정권장악과 김웅> 《신라중대정치사연구》, 1996.
- 김수태, <신라 선덕왕·원성왕의 왕위계승> 《동아연구》 6, 1985.
- 김인숙, <중국 전통시대 여주의 역사 - 그 이미지와 실제 ->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2005.
- 박해현, <해공왕대 귀족세력과 중대왕권> 《전남사학》 11, 1997.
-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 신정훈, <경덕왕대 왕권강화책의 성격>, 1999 :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 신정훈, <신라 해공왕대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동서사학》 11, 2001.
- 윤진석, <신라 지도로 갈문왕의 ‘섭정’>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 이기동, <성덕대왕신종 조성의 역사적 배경> 《성덕대왕신종》, 1999.
- 이기백,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1978 :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 이문기, <신라 해공왕대 오묘제 개혁의 정치적 의미> 《백산학보》 52, 1999.
- 이영호, <신라 해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 이영호, <신라 해공왕 12년 관호복고의 의미> 《대구사학》 39, 1991.
-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영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
- 이지관, <신라 성덕대왕신종명> 《성덕대왕신종》.
- 이호영, <성덕대왕신종명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125, 1975.

- 이호영, 《신라 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1997.
- 전덕재, <신라 중대> 《한국 고대사연구의 새 동향》, 2007.
- 채미하, <신라 혜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2001 : <오묘제왕 왕권> 《신라 국가 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채미하, <신라 국왕의 시학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32, 2009.

新羅惠恭王代滿月夫人の攝政

金壽泰

この小論では惠恭王代の滿月夫人の攝政と關係するいろんな問題を改めて扱って見ることにする。

景德王が765年死亡して惠恭王がその後を継いで王位に就いた。でも惠恭王は即位してすぐ親政したのではなかった。即位した時、8才の幼いごろだったから母後の滿月夫人が攝政を行った。この攝政政治とは攝政の思うまま政治するのではなく群臣達と一緒に政治する貴族聯合政治を指す。故に惠恭王代の初期は滿月夫人と象徴される専制主義勢力と反専制主義眞骨貴族勢力が權力を分點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結果、以後この勢力達は新たな權力闘争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滿月夫人の攝政を合議したその二つの政治勢力の關係はすぐ外れたように見える。滿月夫人は攝政を通じて彼女が保護している惠恭王の權力基盤を新しく強化しようとする一連の措置を取った。でも景德王19年以後、一応勢力を築いた金邕と金良相など反専制主義貴族勢力は滿月夫人と王黨派のこんな活動をそのまま受け入れなかった。その決果、攝政の滿月夫人が退いて惠恭王が親政することになる。この時期は大体的に惠恭王7年、聖徳大王神鐘が完成した頃だ。これは攝政の滿月夫人と政治的な對立葛藤を起こした政治勢力達の勝利を象徴的に表現してくれると考えてもいい。

惠恭王親政期、滿月夫人の動向は具體的に把握することはかた
い。彼女は反專制主義政治勢力によって攝政から退いてその後、政
治的活動にいろんな制約を受けた。しかし金邕及び金良相など反專
制主義眞骨貴族勢力が一層強化した惠恭王10年以後、滿月夫人は再
び新しい變化を試圖する。兩度にわたる謀叛を通じて變化を試み
た。けれども惠恭王の王權強化を追い求めた滿月夫人の努力は失敗
に止める。そして惠恭王がしい-ぎやくされることによって滿月夫人
の政治的努力はこれ以上引き續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それ
ほど滿月夫人と惠恭王はお互い分離されることなく連結されていて
政治的運命を一緒にする勢力だつた。

キーワード：景德王, 惠恭王, 滿月夫人, 攝政, 聖德大王神鐘, 金邕, 金良相

논문 투고일 : 2011. 7. 19 심사완료일 : 2011. 7. 31 게재 확정일 : 2011. 8. 16